

만다라지공원의 후지

만다라지공원은 쇼와 45 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원의 정비를 실시하여 <등나무공원>으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.

그러나 그 후 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시기가 계속되어, 후지꽃의 재생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

거기에 전국적으로 후지의 권위자인 수목의(쓰카모토코나미선생)에게 후지 전체를 점검받고, 헤세 18 년도부터 20 년도에 걸쳐 후지 시렁과 지붕등의 대 개조를 시행하는등 후지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.

지금도 아름다운 후지꽃을 즐길 수 있지만, 앞으로 계속 성장하여 덩굴이 후지 시렁 전체로 퍼져나가면 더욱더 화려하고 멋진 경관을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. 계속 성장하고 있는 앞으로의 후지꽃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.

공원 내에는 11 종류의 약 60 그루의 후지가 있습니다. 주요한 후지의 특성등에 대한 소개입니다.

<노다잇사이>는 <고쿠류후지>라고도 불리며, 짙은 보라색으로 꽃송이가 40 센티에서 50 센티정도로 튼튼하며 키우기 쉽고 꽃도 예쁘게 잘 핍니다.

어린나무때 부터 꽃을 피우기 때문에 <잇사이후지>라고도 합니다.

<규샤쿠후지>는 나가후지계통으로 청자색이고, 약 100 센티에서 200 센티의 꽃송이로, 노다후지의 일종입니다.

<다카야마하쿠류>는 상아색 하얀꽃의 크고 긴송이로 , 꽃송이는 30 센티에서 60 센티정도가 되며 기꽃잎 중앙부분은 아름다운 짙은 노란색입니다. 튼튼하고 꽃도 잘 피는 다화성입니다.

야마후지의 일종입니다.

<야에코쿠류>는 홍자색으로 야에자키 품종입니다. 꽃송이는 20 센티에서 30 센티정도로 꽃잎이 중량감이 있고, 화려하게 겹쳐서 피기 때문에 <모란후지>라고도 불립니다. 노다후지의 일종입니다.

<무라사키카비탄>은 큰 꽃잎으로 약 10 센티 에서 20 센티의 꽃송이로, 꽃송이는 짧지만 화려해서 <가비탄>이라는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. 야마후지의 일종입니다.